

동트는 HDD채용 휴대폰 시대

낸드 플래시 제치고 주목 1순위... 음악 플레이어 기능이 원인

현재 모바일기기용 스토리지 시장은 낸드 플래시와 소형 HDD가 경쟁하고 있다. 음악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이 두 스토리지의 경쟁이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낸드 메모리의 영역이었던 휴대폰에 소형HDD가 진출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음악 플레이어 지원 휴대폰이 인기를 누리면서 벌어지는 추세이다. 글 | 김중을 기자(모바일타임스)

휴대폰에 소형HDD가 채용된다고 짐작하는 이가 몇 년전만 해도 거의 없었다. 카메라폰 등장으로 데이터 저장 용량 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해도 외장 메모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HDD는 휴대폰 업체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처음 HDD탑재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LG전자 및 큐리텔측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욕심 차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로 제공되는 외장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휴대폰에서 필요한 용량은 충분하다"고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휴대폰에도 HDD채용이 추세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노키아 및 소니에릭슨이 HDD를 도입한 휴대폰을 발표했으며, 모토로라마저 올 3분기에 16G HDD탑재 휴대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 있던 HDD를 '인사이드'로 끌어올린 것은 역시 음악플레이어 기능이다. 모바일기기의 컨버전스 추세에 따라 음악플레이어는 작년부터 세계 휴대폰 시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대용량의 저장공간이 필요해 HDD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주류는 4GB HDD이지만, 삼성이 최근 세빛 전시회를 통해 8GB 제품을 선보였고, 모토로라가 하반기 16GB 이상의 HDD를 채용한 휴대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용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휴대폰의 외장 메모리 역

할을 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용량이 1GB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형HDD의 상승세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음악 플레이어 주도의 휴대폰 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0GB 이상의 소형HDD의 인기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MP3P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용량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소형 제품이라도 휴대폰은 음악 플레이어와 또 다른 사용성향의 제품이다. 음악 플레이어가 주머니 혹은 가방에서 작동하는 기기인 반면 휴대폰은 손을 많이 탄다. 손을 많이 탄다는 것은 낙하를 걱정해야 한다. 플래시에 비해 HDD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위험이 많다.

일부 휴대폰 업체들이 외부 충격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HDD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용자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04년 하반기 세계 최초로 1인치짜리 1.5GB 드라이브를 채용한 휴대폰 'SPH-V5400'를 선보이며, HDD휴대폰 출시에 불을 지폈다. HDD

공급 회사는 코니스 스토리지 엘리먼트(Cornice Storage Element)였다.

삼성전자의 SPH-V5400은 2.2인치 QVGA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으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메가픽셀 카메라를 내장했다. 또한 두 개의 스피커에 의한 3D 사운드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1.5GB 제품 출시 1년 만인 2005년 하반기 3GB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폰(모델명:SPH-V7900)을 출시하는 것으로 HDD휴대폰에 대한 애정을 다시 드러냈다.

제품은 작년 3월 세빛 전시회에서 일명 '슈퍼뮤직폰'으로 공개됐지만, 국내 출시는 같은해 3분기에 이뤄졌다.

이 제품을 출시하며 삼성전자는 "음악은 물론 영화 2~3편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폰만으로 어지간한 멀티미디어 구현이 가능해졌다"면서 질과 양을 겸비한 진정한 뮤직폰 시대의 신호탄으로 슈퍼뮤직폰을 평가했다.

그리고 세빛2006 전시회를 통해 삼성전자는 휴대폰 중 최대 용량인 8GB 하드디스크(HDD)를 내장한 스마트폰 '슈퍼뮤직폰 II (SGH-i310)'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올해 하반기 중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바 타입의 슬림형 인테나 디자인을 적용한 '슈퍼뮤직폰 II'는 음악 기능을 특화한 대용량의 스마트폰으로, 음악 파일을 최대 2000곡(곡당 4MB 기준)까지 저장할 수 있다.

휴대폰 전면부에 손가락 끝으로 휠을 돌려 음악을 찾을 수 있는 '조그디스크 방식 내비게이션 키'를 장착했으며, 측면에는 별도로 '뮤직 전용키'를 장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음악을 검색 재생할 수 있다.



노키아

삼성전자의 HDD폰 출시에 장단을 맞춘 업체는 역시 노키아였다. 이 회사는 작년 5월 4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탑재했으며, 뮤직 플레이어 기능이 특징인 'N91' 휴대폰을 공개했다. 정식 출시는 작년 하반기였다.

노키아 제품은 MP3/AAC/WMA/Real V8 등의 코덱에 대응한다. 최대 12.5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PC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노키아 PC Suite'를 사용한다. 물론 다운로드도 음악파일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KDDI&도시바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벌이던 HDD 탑재 휴대폰 출시 경쟁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는 KDDI였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일본 최초로 4GB HDD 탑재 휴대폰 'W41T(도시바 개발)'를 출시했다.

4GB HDD 탑재 외 블루투스를 지원한다. 최대 2000 곡을 HDD에 담을 수 있으며, 카메라는 323만 픽셀 CCD를 장착했다.

소니에릭슨

뮤직플레이어 휴대폰에 관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소니에릭슨도 HDD탑재 휴대폰 출시에서 빠질 수 없다. 이 회사는 워크맨 휴대폰 시리즈 중 두 번째인 4GB HDD탑재 휴대폰 'W950'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용으로 올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통신방식은 UMTS 2100과 GSM/GPRS 900/1800/1900의 듀얼모드이다. 4GB로 최대 4000곡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다.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 'Disc2Phone'가 추가돼 사용자는 이것을 이용해 PC로부터 W950에 음악을 전송할 수 있다.

심미안 v9.1과 UIQ 3.0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으며, 오페라 8 브라우저 및 블루투스를 지원한다. 전자메일과 비디오 스트리밍 및 3D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

모토로라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 모토로라도 HDD탑재 휴대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DD 용량은 16GB로 전해졌다. **K**